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중국-EU, 에너지협력 강화

- 중국과 EU의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제8차 중국·EU 에너지협력회의가 7월 6일 상하이 엑스포 벨기에 EU관에서 시작되었음.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과 유럽위원회의 에너지 담당 위원은 에너지 분야, 특히 녹색에너지에 대한 협력 강화에 의욕을 나타냄.

- 중국·EU 에너지협력 회의는 1994년부터 2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있음. 이번 회의는 2일 일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송전시스템의 지능화,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연료의 3가지 의제를 놓고 토론이 이루어짐.

- '09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며 2번째로 큰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으며 총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전력의 80%가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에너지 소비의 이러한 구성은 중국 에너지절약, CO₂배출량 감축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유럽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언급함.

- 유럽위원회의 에너지 담당위원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안보 확보를 강조하였음. 또한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의 안보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방법뿐이라고 언급함.

(CRI, 2010.7.6)

스위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확대방안 가결

- 스위스 연방의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FIT)을 약 1/3만큼 확대하는 방안을 6월 18일에 가결함.

- 동 방안에서는 '13년부터 Sfr 500백만 이상의 FIT를 조성할

계획임.

- 스위스는 '30년까지 현재 전력 소비의 10%인 5,400GWh의 전력생산을 위해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임.

- 현재 600~1,000MW 규모의 소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프로젝트가 약 7,000개로 자금조달을 기다리고 있음.

(EU Energy, 2010.7.2)

JICA, 인도에 에너지절약 기술 지원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규슈지사는 7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인도 정부 에너지효율국의 기술 연수를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함. 인도의 에너지진단 전문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기술을 주제로 한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연수는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JICA가 '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이 4년째임. 이번에는 7월 5일 인도 정부 에너지효율국 행정관 및 시멘트, 섬유, 비료, 발전소, 항공기 부문의 에너지진단 전문가와 관리사가 일본을 방문함.

- 본 연수는 일본의 에너지절약 방법과 범용적인 에너지절약 기술을 이해하고, 에너지절약 활동의 주요 수단인 설비진단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함. 인도는 사회 전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 고도성장이 진행 중인 인도는 현재 에너지 소비량도 세계 4번째로, 경제 발전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급증으로 에너지절약 대책의 추진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인도에서는 '01년 에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02년부터 전력부 관할 에너지효율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08년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음.

(Indonews, 2010.7.12)

중국, 에너지 소비량 세계 최대 IEA 발표

-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7월 20일 중국의 '09년 에너지 소비량이 석유 환산으로 2.2십억 톤 이상에 달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되었다고 밝힘. 향후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국가 에너지국 관계자는 IEA의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음.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1십억 32백만 톤으로 미국보다 적다고 주장함. 단, 산출 근거에 대해 중국과 IEA는 자료의 출처가 다르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음.
 - IEA에 따르면 중국의 CO₂배출량은 '07년에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되었음.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개발도상국이며, 따라서 유엔의 CO₂배출량 의무감축 할당을 거부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IEA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IEA에 가입하지 않음

(日本經濟新聞, 2010.7.20)

미국, 가정 에너지효율 증진에 \$30백만 지원

- 미국 에너지부(DOE)는 미국 가정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15개의 R&D 그룹에 \$30백만을 지원할 계획임을 7월 20일 발표함.
 - 각 그룹은 향후 첫 18개월 동안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500천~2.5백만을 지원받게 됨.
 - 15개 그룹은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해 새로운 혁신기술을 연구·보급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및 기존 레트로핏(Retrofit)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할 계획임.
 - DOE는 동 계획 하에 전문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주택 레트로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이는 또한 '10년 4월 Joe Biden 미국 부통령이 발표한 Retrofit Ramp-up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DOE, 2010. 7. 20)

영국, 정부의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공개

- Greg Baker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Minister와 Cabinet Office Minister인 Francis Maude는 이제부터 18개 정부부처 본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었음을 8월 5일 발표함.
 - 이와 같은 에너지 사용현황 공개는 중앙정부가 지난 5월 '11년까지 CO₂배출량을 10% 감축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난 뒤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역대 최고의 녹색정부가 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임.
 - 실시간 현황 공개와 더불어 냉방사용 자제, IT 설비 전원조절 등의 에너지절약 대책도 이미 실행되고 있음.
 - 각 부처별로 에너지원과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DECC, 2010.8.5)

영국,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금지 법안 폐지

- Chris Huhne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장관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를 금지했던 법이 폐지되는 8월 18일부터 지자체가 자체 그린에너지 사업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국가 혹은 지역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8월 9일 발표함.
 - 1976년 지자체의 전력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잉글랜드의 총 발전량에서 지자체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0.01%밖에 되지 않음. (독일의 경우 이보다 100배 높은 수준)
 - 기존의 대규모 전력공급업체들로 인해 영국의 그린에너지 혁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과 잠재성이 축소되어 있었으나, 금지법의 폐지를 계기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지자체들은 연간 최고 100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거두는 등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자체의 수익은 가정의 에너지효율 제고, 에너지사용료 감소, 연료 빈곤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될 것임.

(DECC, 2010.8.9)